

천용(擅用) 조사의 악명이 지금까지 이어질까

김방규 | 전선도전기(주)사장

60년대에는 전기 사정이 괜찮았다는 서울 중심부에도 3,300V 배전선 상단은 동력선과 특선(24시간 확보선)이, 하단에는 전등선이 가선되어 있었다.

특선은 주요 기관용이고 전등선은 저녁 일몰시에 들어오고 밤특선은 주요 기관용이고 전등선은 저녁 일몰시에 들어오고 밤 12시면 나간다. 동력선은 밤 12시에 들어오고 저녁 전등선과 교체되어 단전 된다. 그러니 공장이 철야 가동은 상상할 수 없고 대낮에도 전등이 들어오지 않아 작업이 불편했다.

이 시대에 도전(盜電)이 많았으며 한전의 단속도 악명이 높았다. 220V 동력선에 전등을 연결해서 쓰면 이것도 천용(擅用)으로 단속대상이다.

일반 전등 수용가도 정액등과 종량등으로 나누어 종량등은 말 그대로 계량기가 달린 집으로 좀 형편이 괜찮은 쪽인데 개량기 자체가 귀중품이어서 도난의 대상이라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깊숙한 곳에, 심지어는 벽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도전위험이 있었다.

정액등인 경우도 계약이 2등 또는 3등으로 40W기준으로 되어있어 전구가 끊어져 60W를 끼어도 천용(擅用)이고 콘센트가 붙은 소켓을 써도 전열기(다리미)를 쓴 혐의가 있다고 장롱 속까지 뒤지며 조사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40W 전구등을 쓴 것으로 간주, 벌금을 부과하고 체불하면 단전을 하니 요즘 같으면 어느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전기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멈출 정도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2,3년 전에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한전이 최하위를 받은 적이 있다. 이즈음의 한전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 당연히 상위권여야 하는데 왜그럴까.

혹시 과거 악명높은 천용(擅用)조사의 부정적인 잔영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